

2023년
말씀 선포 기도문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 30 : 6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저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사 (롬 5 : 5절)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
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 : 3 - 4절)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 생명만큼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제게 주신 정체성임을 믿습니다.
저를 존귀히 여겨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3.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겔 36 : 26절)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제 마음은 굳어지고
돌같이 단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사 제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사
새로운 열정과 자신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기름 부으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왕하 6 : 16 - 17절)

우리의 눈을 여시는 주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적들이
에워싼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영안을 여사 저와 함께 한 자가
적들과 함께 한 자들보다 많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주변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함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넉넉히 이기는 자’이며
그러므로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5.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시 91 : 9 - 10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보호의 하나님!
주님은 제가 주의 임재 안에
거할 때 화가 제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제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임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오벰에돔과
같을 것이며 그에게 허락하셨듯이
저와 저의 장막에도 주의 복과
보호하심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6.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 103 : 2 - 3절)

치유하시는 하나님!

제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택 안에는
모든 죄악을 사해주시는 은택과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택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저는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정서의 병,
육체의 병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취합니다.

7.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사 65 : 23 - 24절)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듣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저와 저의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수고로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일군 결실이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돌보심은
저의 자녀에게 까지 흐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8.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살후 3 : 3절)

저의 안정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시고, 성실하신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삶을 지키듯
하나님은 제 현재와 미래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영육 간에 저의 악한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삶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9.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금휼을 잊지 마옵소서” (합 3 : 2절)

부흥의 하나님!

이 시대는 생기 없이 흠어진
마른 뼈와 같은 시대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불의와 불법, 부도덕과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시대일지라도 금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과 가정, 목회자들과
종직자들, 다음 세대와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온 열방 가운데
통회자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꽃피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